

□ 사례명 : 다시 시작! 파이팅 구미 착한소비운동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사업 개요	○ 위 치 : 낙동강체육공원 일원 ○ 추진기간 : 2020. 6. 17(수) ~ 6. 19(금) 3일간 ○ 사 업 비 : 100백만원 ○ 사업내용 : 전국지자체 최초, 문화연계형 착한소비 종합판매 실시 * 드라이브스루 지역제품 종합판매 & 드라이브인 문화광장(자동차극장)
② 추진 경과	○ '20. 5. 20 : 포스트코로나 대시민응원프로젝트기획안 보고 ○ '20. 6. 01 : 참여업체 공개모집(39개 지역업체 모집) *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, 기업인 등 우선 선정 ○ '20. 6. 04 : 참여기업체 설명회(포장 및 판매상품 컨설팅) ○ '20. 6. 17 ~6. 19 : 행사 진행
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	○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낯설어하는 농민 및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 판매부스별 공무원을 함께 배치하여 판매 적극 지원 ○ 자동차극장 내에서 영화상영 중 시스템오류로 잠시 화면에 검은선이 나타나는 문제 발생 ⇒ 지역영화관과 협의하여 차량별 영화초대권 제공
④ 우수사례 내용	○ 코로나19 확산, 각종 행사취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내수회복 필요 ○ 장기간 사회적 및 생활속거리두기로 시민격려 및 심리치료 필요 ⇒ 드라이브스루 지역제품 종합판매장(39개사 지역업체 참여) -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재고물품소진 및 시민 특가구입 ⇒ 드라이브 인 문화광장(자동차극장) - 시민 문화갈증 해소 및 지역영화관과 상생하는 문화소비
⑤ 성과	○ 3일간 생활속거리 유지하며 3,812건, 7,000만원 판매실적 -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○ 자동차극장의 경우 690대 관람, 922만원 판매실적 - 사회적거리두기로 지친 시민격려 및 심리치료

다시 시작! 파이팅 구미, 착한소비운동

1. 과제 선정 내용

- 코로나19 확산, 각종 행사취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내수회복 필요
 - 확진자 급증으로 3~4월 기업체, 소상공인 경제여건 크게 악화
 - 5개의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의 경우, 산단 근로자의 확진이 공장 폐쇄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등 피해 급증
- 장기간 사회적 및 생활속거리두기로 시민격려 및 심리치료 필요
 - 코로나블루를 치료하는 다양한 볼거리 운영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 필요

2. 문제원인 분석

☐ 지역경제 동향 (*확진자가 급증한 2.29일을 기점으로 민생여건 크게 악화)

○ 소비증감현황 *구미지역 카드매출액 분석

(단위 : 억원, %)

	2월 1주	2월 2주	2월 3주	2월 4주	3월 1주	3월 2주	3월 3주	3월 4주
2019	109	117	139	125	117	120	132	119
2020	111	117	129	89	79	84	104	93
변동율	1.9	-	-7.2	-28.8	-32.5	-30	-21.2	-21.8

○ 업종별 매출감소현황

구 분	감소율	매출 90%이상 감소	매출 30%이상 감소
구미시	-22.2% (*3월4주)	영화/공연, 학원, 인테리어	음식점, 패션잡화, 헬스클럽, PC방, 노래방

□ 기업체 피해현황

- 중국·미국·유럽 코로나 피해확산으로 해외공장 셧다운, 부품공급 차질
- 수출기업은 100% 직간접 피해, 내수기업은 89.7% 생산피해
 - (구미국가산단) 해외공장 가동중단으로 기업체 경영위기 직면
 - *수출입차질, 생산중단, 원자재 수급문제 등 관내 피해기업 369개사

※ 구미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

- 2019년 총 26개사 신청 / 2020. 1.1~2.16 9개사, 2.17~3.17 315개사
- ➡ 코로나19 인한 신청건수는 작년 총 신청건수 대비 1,100% 증가 (12배)

3. 방안 마련 및 실행

- 다시시작 파이팅구미운동은 ‘퇴근길 드라이브스루’와 ‘함께하는 문화광장’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전부터 농산물, 식품 그리고 드라이브 인 문화소비까지 한 자리에 모아 전국 최대 규모 드라이브 방식의 종합소비재 판매장으로 운영함
- 참여업체는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공모하여 힘내라 중소기업 7개팀과 우리지역 농산물 10개팀, 구미맛집 21개팀, 지역영화관 1개팀 등 39개 업체 선정
- 먼저, 퇴근길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은 16시부터 19시30분까지 운영하였고, 입구에서 배부된 제품설명서를 보면서 20개 부스를 순차적으로 구매 가능한 ‘일반 트랙존’과 사전에 물품을 정한 차량은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‘패스트트랙존’ 운영
- 또한, 함께하는 문화광장은 영화산업 활력 제고와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영화관과 협업하여 대형 LED(16m*7m) 자동차극장을 하루 2회(17시, 20시)로 운영

○ 상영작은 영화사와 협의하여 최신영화 2편을 선정했으며, 17시 상영작 ‘슈퍼스타 뚜루(애니메이션, 전체관람가)’는 차 1대당 1만원, 20시 상영작 ‘결백(15세 이상 관람가)’은 차1대당 1만6천원으로 씨네Q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예매 및 구미봉곡점 매표소에서 현장 예매하는 사전예매방식으로 진행

○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▲드라이브 스루/인 판매방식도입과 ▲행사지원 인원 열체크, 문진표 작성, ▲손소독, 라텍스장갑 및 마스크 착용, ▲주요 시설물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방문한 시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함

*관련부서 : 기업지원과, 일자리경제과, 위생과, 유통과, 농정과, 안전재난과, 구미보건소, 새마을과, 구미전자정보기술원, 경찰서, 자율방범대, 새마을교통 등 협업

4. 장애극복

○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낯설어하는 농민 및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 판매부스별 공무원을 함께 배치하여 판매 적극 지원

○ 자동차극장 내에서 영화상영 중 시스템오류로 잠시 화면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문제 발생

⇒ 지역영화관과 협의하여 차량별 영화초대권 제공

(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보상하고, 추후 지역영화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)

5. 성과(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)

- 코로나19 확산 및 각종 행사취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내수회복이 필요하고, 장기간 사회적 및 생활속거리두기로 시민격려 및 심리 치료 필요한 상황이었음
- 코로나블루를 치료하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떨어진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음
- 그런 의미에서 차안에서 탑승한 상태로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는 드라이브 스루/인 방식으로 행사 추진
-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지역 특가상품을 구입하는 착한소비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
 - 3일간 생활속거리 유지하며 3,812건, 7,000만원 판매실적
- 드라이브 인 문화광장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영화관과 상생하는 문화소비를 이룸
 - 차량기준 690대 관람, 922만원 판매실적

참고자료



대구일보

2020년 06월 23일 화요일 010면 경북



구미시가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 착한 소비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자동차에 탄 채 지역 농민이 재배한 감자를 구매하고 있다.

운전하며 쇼핑 “편해요” 착한 소비운동 “좋아요”

구미시가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착한 소비운동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7~19일 사흘간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‘다시 시작, 파이팅 구미 착한 소비 운동’을 펼친 결과 총 7천922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. 690대의 차량이 자동차 극장을 이용했다.

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.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부스는 7개 업체가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 부스다. 모두 875건 3천61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기업 홍보 효과를 거뒀

구미시, 드라이브스루 적용
지역 중·농가 부스 운영
7천922만 원 판매 성과 거둬
자동차 극장도 690대 이용

다.
또 3개 지역 농가가 연계한 농산물 부스는 896건 1천128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, 18개 업체가 참여한 구미맛집 부스는 2천41건에 2천811만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.
자동차 극장은 17일 209대, 18일 221대,

19일 260대 등 690대가 입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구미시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착한 소비운동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협심해 시민들의 구매 심리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지역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벤트를 확대, 시행한다는 방침이다.

장세용 구미시장장은 “소상공인과 공무원,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수록 더 강해지는 구미시 저력을 보여준 착한 소비운동이었다”며 “앞으로 더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착한 소비운동 방안을 모색하겠다”고 말했다.

신승남 기자

intel887@idaegu.com